



The Pearl of Son

진주조개잡이 램바우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선교사 데이비드 몰스는 잔잔하게 물결치는 바다를 바라보며 노련한 조개잡이인 원주민 친구 램바우를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램바우가 물 위로 떠오르며 굉장히 큰 진주가 들어 있는 커다란 조개를 내밀었다. 몰스 선교사가 탄성을 질렀다.

“우와, 진주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진주는 처음 봐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네. 이것 보게, 흠이 있잖아. 검은 점도 있고 자세히 보면 완전히 동그랗지도 않다네. 하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훌륭한 편이라고 할 수 있지.”

“눈이 너무 까다로운 것 같네요. 내가 보기에는 최고인 것 같은데...”

“자네가 자네의 하나님에 대해서 늘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지.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가 없다고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작은 죄까지도 살살이 보신다고 말하지 않았었나!”

“당신 말이 맞아요. 램바우,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만 완벽한 의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쉽다는 게 바로 자네 종교의 문제점이야. 어떻게 단지 믿기만 하면 하늘 나라에 갈 수 있단 말인가? 말도 안되는 소리! 어쨌든 자네는 이해 하지 못하겠지만 나는 내 힘으로 하늘 나라에 갈걸세. 이제 곧 성지를 향해 순례길을 떠날 거야. 나는 델리까지 무릎으로 기어서 갈거라네. 일생동안 나는 그것을 위해 살았다네.”



“램바우! 당신은 그런 식으로는 절대로 하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



으로 당신이 하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노인은 전혀 마음을 바
꾸려 하지 않았다.

"자네는 수년 간 나와 함께
하며 아플 때나 슬플 때나 항상
나의 위로가 되어 주었네. 자네는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친구였지. 하
지만 자네조차도 영원한 복을 얻으려는 나의 노력
을 막을 수는 없다네."

이 나이든 친구 램바우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
없이 받는 구원을 이해하려고도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았다.



아들의 진주

늦은 밤, 몰스는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나가 보니 램바우가 단단하고 묵직한 상자를 들고 서 있었다.

"몰스, 나는 오랫동안 이 상자를 보관하고 있었다네. 이 속에는 아주 귀중한 것이 하나 들어 있지. 내게는 예전에 한 아들이 있었는데, 이건 그 아이의 것일세."

"아들이라니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이제 나는 곧 델리까지 순례길을 떠나야 하네. 다시는 집으로 돌아 올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네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하기로 했다네. 내 아들은 인도에서 가장 뛰어난 진주조개잡이였지. 그 아이

의 꿈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진주를 캐는 것이었는데, 어느 날 드디어 엄청난 진주를 발견했다네. 그러나 그것을 얻으려는 열망으로 물 속에 너무 오랫동안 있다가 결국 목숨을 잃게 되었지. 이건 그 때 얻은 진주라네,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었는데, 이제 이것을 자네에게 주고 싶네."

노인은 펼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고 진주를 꺼내서 몰스에게 건네 주었다. 그 진주는 찬란한 빛을 발하며 반짝거리고 있었다.

"이럴 수가! 굉장하네요..."

"완벽한 진주라네." 노인은 조용히 대답했다.

아들의 피값

그때 주님께서 선교사 몰스에게 놀라운 생각을 주셨다.

"람바우! 이것은 아주 진귀한 진주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사겠습니다. 만 달러 어떻습니까?"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아, 그러면 만 오천 달러면 되겠습니까?"



불쾌한 표정이 램바우의 얼굴을 스쳤다.

"내 말을 못 알아 듣겠나?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결코 이 진주의 값을 치를 수는 없네. 나는 절대로 이 진주를 팔지 않겠지만, 내 친구인 자네에게 선물로 주겠다는 말일세."

"아니오, 램바우, 그렇게 거저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나는 그것을 내 힘으로 사고 싶습니다.”

노인은 아연실색하며 말했다. “이것 보게. 몰스, 아직도 모르겠나? 나의 하나님에 없는 아들이 이 진주와 목숨을 바꾸었단 말일세. 자네는 어떤 것으로도 이 진주의 값을 치를 수 없다네. 이 진주는 내 아들의 피 값이란 말이야. 그냥 받게나, 자네에 대한 사랑의 표시로서 그냥 받으란 말일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

잠시 동안 선교사는 가슴이 벅차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몰스는 노인의 손을 꼭 붙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요! 람바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인은 충격적인 얼굴로 선교사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구원에 대해 깨닫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값없는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원은 세상의 어떤 사람도 살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어떠한 노력이나 고행이나 돈으로도 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 값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죄인인 당신에게 주시는 사랑의 선물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굵은 눈물 방울이 노인의 눈에서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드디어 노인은 이해한 것이다.

“몰스, 이제야 알겠네. 나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구원하신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무슨 말인지 알게 되었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지금 받겠네.”

당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선물을 지금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롬 5:8).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엡 2:8,9).



한국전도지협회
KOREAN TRACT SOCIETY
Printed in Partnership with International Tract Society
www.jundocenter.com